# 판소리 · 대중가요에 투영된 불교는…

## 불교평론 논단 · 문화광장 관련 기고 '눈길'






안숙선 명창의 판소리 공연 모습(사진 왼쪽)과 정태춘, 박은옥 부부의 산사음악회 공연 모습.(사진 오른쪽) 판소리와 가요에도 불교가 투영된 작품은 상당 수다.

**수궁가, 자타카 이야기 기원**
**흥부가 등 판소리 內 스님들**
**남루한 행색 '고승'으로 표현**
**조선 민중 바라던 스님 그려**

**현대의 대중가요 속 불교 살펴**
**1980~90년대 불교 테마 유행**
**불교 테마 노래 찬불의식 활용**
**틀에갇혀진 대중성 미흡 '과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음악은 인류사와 함께해왔다. 1700여 년 한반도에 전래된 불교는 한국인이 즐겨 부른 음악과 노래에도 투영됐다.

대표 불교학술계간지 〈불교평론〉 봄호(통권 85)에는 판소리와 대중가요에 투영된 불교를 살펴보는 기고들이 수록돼 눈길을 끈다. 논단에 기고된 임란경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나눔사업팀장(서울대 강사)의 '판소리 속 불교'는 판소리에 나타난 스님의 모습을 통해 민중이 바라는 불교의 모습을 살폈다.

임 팀장에 따르면 '수궁가'의 기원은 인도 불교설화 〈자타카(Jāta-ka, 本生譚)〉 '원숭이와 악어' 이야기에 있다. 이 설화는 한역(漢譯)돼 중국 불전 설화로 수록되면서 자라 또는 용이 원숭이의 간을 탐낸다는 내용으로 변화됐다. 한반도에 전래된 이후에는 토끼와 거북이 설화로 구전되는데 이는 〈삼국사기〉 권41 열전 김유신조 '구토지설(龜兎之說)'에서 확인된다.

구토설화는 17~18세기 판소리계 소설 〈별주부전〉과 판소리 '수궁가(水宮歌)'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시대를 거치면서 '수궁가' 내용은 근원설화의 골격만을 취하고 내용은 불교와 상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표면적으로는 군신유의(忠)를 주제로 했지만, 용왕으로 상징되는 봉건적 권력 구조와 그 모순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담겼다.

근원설화의 뼈대만 남은 '수궁가'와는 달리 '심청가', '춘향가', '흥보가', '적벽가', '옹고집타령', '숙영낭자타령' 등에는 불교와 관련된 요소들이 산재해 있고, 사건 발단의 주요 인물로 승려가 등장한다는 게 임 팀장의 주장이다.

판소리 '심청가', '흥보가', '옹고집타령', '숙영낭자타령', '변강쇠타령' 속 승려는 모두 주인공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사건을 엮어가는 인물이다. 이들은 화자와 상황에 따라 도승, 대사, 중놈으로 불리지만 대체적으로 '고승'으로써 묘사들이 호의적이다.

임 팀장은 "판소리 속에서 스님은 '중놈'으로 낮춰 불리며 천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얕잡히고 있지만은 않다. 도리어 신통력을 지닌 비범한 '도승(道僧)'으로서 주인공을 도와주거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인물이자 악행을 저지르는 주인공을 계도하는 역할을 한다"며 "판소리에 등장하는 스님은 조선 후기 민중들이 인식했던 현실 속 승려의 모습과 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승려의 역할이 투영돼 만들어진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순 한국대중음악힐링센터 대표가 기고한 '한국 대중음악에서 만나는 불교'는 193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발표된 대중가요 속에 나타는 불교에 대해 분석했다. 이 대표는 한국문학사에서 불교 노래의 기원은 신라 향가로 시작돼 시조, 가사, 판소리, 민요로 이어졌고, 이는 20세기 현대 대중음악사에서도 그대로 투영됐다고 봤다.

일제강점기 불교 관련 노래는 스님 출신 시인 조명암(趙鳴岩, 1913~1993)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1940년 '꿈꾸는 백마강(조명암 작사, 김해송 작곡, 이인권 노래)'과 '낙화삼천(조명암 작사, 김해송 작곡, 김정구 노래, 1942)'를 발표했다.

1950~60년대로 불교 테마 가요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1965년 극작가 김석야(1929~2000)가 집필한 라디오드라마 주제가 '하숙생(김석야 작사, 김호길 작곡, 최희준 노래)'이다. 이 대표는 "노래를 작사한 김석야는 계룡산 동학사 쓰레기장에 버려진 삭발한 여인들의 모발을 보면서 인생무상을 느껴서 가사를 쓰게 됐다"고 전했다.

1970~90년대에는 지금도 잘 알려진 대중가수들이 불교 테마 가요를 다수 내놓던 시기였다. 특히, 1990년대가 불교 테마 가요가 8편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김국환의 '타타타'다. '타타타'는 산스크리트어 '타르타(Tathata)'에서 유래했는데 '있는 그대로의 것', 진여(眞如)를 뜻하는 말이라고 이 대표는 전했다.

근현대기 많은 불교 테마 가요가 나왔음에도 시대가 지나면서 대중적 호소력이 미약한 것에 대해서는 숙제로 꼽았다. 이 대표는 "찬불 내용만 단조롭게 평면적으로 담고 있는 불교 테마 노래는 일정한 틀과 규격에 갇혀버린 양식이라 대중적 호소력이 다소 미약하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명상과 힐링의 기능을 담고 있는 노래들이 속속 등장했다"고 평가했다.

# K-석조보존기술, 캄보디아서 빛나다

## 국립문화재硏 · 앙코르보존소 공동 연구 성과 보고서 발간



한국의 석조문화재 보존기술이 캄보디아 크메르 석조문화재에 적용됐다. 이는 한국이 개발한 보존 기술이 국외에 처음 적용된 사례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는 "〈캄보디아 크메르 석조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월 17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대한민국과 캄보디아가 공동으로 수행한 크메르 석조문화유산 연구의 성과를 담은 것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캄보디아 크메르 문화유산 중 보존 조치가 필요한 석조문화유산에 한국의 보존 기술을 적용하여 진단하였고, 공동 연구 기관인 캄보디아 앙코르보존소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수리 · 복원을 진행했다.

그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석조문화재의 보존 기술과 석조문화재의 표면 상태 비파괴 진단 기술 등을 연구 · 개발해 왔다. 이 같은 기술은 국내 석조문화재의 재질 특성을 밝히고 정량적 표면 풍화 진단을 하는 데 적용됐다.

보고서 〈캄보디아 크메르 석조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에 담긴 보존 기술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개발한 보존 기술이 국외에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이 보고서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했던 캄보디아 앙코르보존소 소장 석상, 노코르바체이 사원, 반테이 츠마르의 보존 현황과 역사가 담겨 있고, 보존과 복원에 필요한 과학적 분석과 기술 제언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전암 대자율 측정, 손상 지도 작성, 초음파 물성 진단, 적외선 열화상 분석, 초분광 이미지 분석 등 다양한 비파괴 진단 연구 결과도 수록돼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보고서에 수록된 결과들은 캄보디아 석조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에 적용될 것"이라며 "보존 과학 관련 기관과 관련 연구자들에게도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석조문화재의 보존 기술을 미얀마, 몽골 등의 국가에 보급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분석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인도철학 · 불교, 자연 어떻게 바라봤나

## 인도철학회, 3월 27일 춘계학술대회

인도철학과 불교가 자연과 인간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인도철학회(회장 이태승)는 3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인도철학과 불교에서 바라본 자연과 인간'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온라인 줌(Zoom)으로 개최한다.

이날 주요 발표로는 △나무로 태어난 나의 일상은 가능한 것일까?-파탄잘라 상키야의 경우(안필섭, 동국대) △자이나 생명개념과 생태론(양영순, 동국대) △자연으로서의 동식물과 음식으로서의 동식물-초기불교의 시각을 중심으로(공만식, 수원 가톨릭대) △부파불교에서 바라본 자연과 인간(최경아, 강릉 원주대) △바비베까의 비-채식주의: 고기를 먹고 원하는 것이 살생을 야기하는가(함형석, 전남대) 등이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강형철(동국대), 최지연(한국외대), 김경래(동국대), 이규완(서울대), 남수영(능인대)가 참석한다.

신성민 기자

# 유물 · 문헌 통해 한식 이해 증진

## 불교문예연구소, 4월 8일 컨퍼런스

유물과 문헌을 통해 한국음식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는 4월 8일 오후 1시 동방문화대학원대학 호운관에서 '유물과 문헌을 통한 한식의 이해'를 주제로 제2회 음식학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권대영 前 한국식품연구원장의 '중국 문화공정과 한식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는 이날 컨퍼런스는 김성순 전통문화대 박사가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僧伽日用食時默言作法)〉에 나타난 발우공양 작법 고찰'을, 차순철 서라벌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단장이 '출토유물로 살펴본 경주 성건동 창고유적-사찰의 장항아리인가, 왕궁의 술항아리인가'를 각각 발표한다.

강연과 발제 이후에는 토론과 질의 응답이 진행되며,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중계가 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